

광주송정역 주차난 4월부터 '숨통'



8일 오후 광주송정역 주차빌딩 건축 공사가 한창이다. 주차빌딩은 3월 말 공사를 마친 후 4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580대 수용 주차빌딩 시범운영...5월부터 정식 운영

완공 시점이 두 차례나 연기됐던 광주송정역 주차빌딩이 오는 4월부터 운영돼 KTX 이용객의 주차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주차빌딩은 3월 말 공사가 완료돼 4월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역 광장에 있는 임시 주차장 철거 등 부대 공사까지 끝나면 5월 준공과 함께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주차빌딩은 지상 6층, 1580면 규모로 사업비 370억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부담했다. 기존 송정역 주차빌딩은 수용 능력이 400여대에 그쳐 확충 요구가 이어졌다.

송정역 이용객들은 2021년 6월 이후 공사 기간에는 임시 주차장이나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 주차장 완공 시점도 지난해 10월에서 12월, 또 다시 올 3월로 두 차례나 연기되기도 했다. 일부 사설 주차장에서는 주차난을 악용해 과도한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관련 민원도 이어졌다.

광주시는 새로운 주차빌딩이 완공됨에 따라 운영에 대비한 안전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광산구, 광주경찰청, 한국철도공사, 도로교통공단과 합동 전담팀을 구성해 긴급 현장에서 첫 운영 회의도 열었다.

전담팀은 주차장 출입 차량 교통사고 예방, 주차빌딩 이용자와 주변 통행 시민 안전 확보, 송정역 주변 상무대로 차량 정체 예방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배상영 광주시 광역교통과장은 "주차빌딩이 운영되면 차량 밀집, 출입구 혼동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전담팀에서 사전 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4조 2천억 투입 고령친화도시 조성

52개 과제 5개년 계획 확정...돌봄복지 강화 등 인프라 구축

광주시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4조 1494억원을 투입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고령친화도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광주시는 8일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열고 '제2기 고령친화도시 조성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2기 기본계획은 광주시의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인증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는 지난 3년간 추진한 제1기 실행계획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수립한 제2기 기본계획 정책방향과 비전, 주요 정책을 논의·심의했다.

확정된 기본계획은 일자리, 사회참여, 돌봄·인

권, 보건·요양, 생활환경 등 5개 영역 52개 세부과제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4조1494억원을 투입한다.

주요과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빛고을50+ 일자리, 빛고을효령노인 타운 운영 조성, 고령친화 공공도서관 서비스 제공,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영구임대 아파트 주거공간 개선 등이다.

시는 특히 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 모바일 헬스케어,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독거노인공동거주제 운영, 세대별 맞춤형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 평생학습형 일자리 플랫폼 운영,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광주

형 도시농업 육성 지원 등 14개 신규 과제도 추진한다.

광주시는 제2기 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3월 가입 승인을 목표로 이달 중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재인증(가입) 신청을 할 계획이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문제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활력 있고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지향하며, 현재 44개국 1110여 개 도시(국내 33개)가 가입했다.

광주시는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가입 승인'을 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환경공단, 하수처리 노후설비 교체

총 85억원 투입 30년 지난 처리장 개선...영산강 수질 개선 기대

광주환경공단이 노후설비 교체를 통해 하수처리 효율을 개선에 나선다.

8일 광주환경공단에 따르면 제1·2하수처리장 처리설비의 효율개선과 방류수질 안정화를 위해 총 40개 사업에 85억 원(국비 15억원 포함)을 투자해 노후 시설개선에 들어간다.

이번 제1·2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을 통해 영산강 수질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암모니아성 질소를 기존 70%에서 약 15%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또한 각종 펌프와 원심탈수기, 보일러 등 노후

회된 주요 38종 설비를 신형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하수처리 효율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료비 부담은 줄일 계획이다.

이번 성능 보강사업이 완료되면 방류 수질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영산강 수질보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한 이사장은 "최근 연료비 급등으로 일부 고효율 기기 투자 비용을 불과 2~3년 만에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시설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농작물재해보험료 90% 지원

농가 경영 안정 도모...농축협서 과수 4종 3월 3일까지 신청

전남도가 태풍, 우박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전함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3월 3일까지 접수한다.

전남도가 보험료 가입액의 90%를 지원, 농가의 자부담 규모는 10%다. 가입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뽕은감 등 과수 4종으로 전남지역 농·축협, 원예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해당 품목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우박·지진·화재는 물론 언 피해(동상해)와 햇볕 데임(일소) 등 여러 자연재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4개 품목에 대해 6398 농가가 5000ha를 가입했으며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금으로 모두 67억원을 지급해 농작물 피해를 어려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됐다.

실제 장사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한 농가는 330

만원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태풍 피해를 입어 보험 부담액보다 12배 많은 4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또 영암에서 뽕은 감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도 260만원으로 가입해 태풍 피해로 14배 많은 3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재해는 이상기후로 발생 예측이 어렵고 일상화되고 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 경영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많은 농업인이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남도는 농가 부담을 낮추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원율을 10% 인상한 90%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그 결과 지난해 전남지역 가입률은 62%를 기록, 전국 평균 가입률의 12%를 웃돌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4인 가족 기준중위소득 162만원 이하로...3000여명 신규 혜택

전남도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 소득 기준을 5.47% 올리고 기본재산 공제액을 5300만원으로 인상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비용 등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인 153만원 이하에서 162만원 이하로 5.47% 상향했다. 또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53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시 단위 4200만원, 군 단위 3500만원 등에서 최대 1800만원 상향된 금액이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재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연봉, 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고재산자인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전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최근 5년간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 등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 2018년 8만5000명에서 2022년 10만4000명으로 22.7% 늘었다.

곽영호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로 올해 약 3000명 정도가 신규 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득이 없지만 재산 기준 초과로 수급에서 탈락했던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하게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